

## 품종개량 위주로 일부 사슴거래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체제이후 전 산업분야에 걸쳐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에 민감한 한의약업계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분야가 한의약 업계라고 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서울 경동약령시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한의원중 한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 스스로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급료를 20~30% 삭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가 활발하고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고 있다는 증표다.

녹용을 생산하는 양록농가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IMF체제이전인 지난해만 해도 농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녹용이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판매되었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이도 여의치 않아 농가들 마다 녹용이 판매되지 않는다고 울상이다. IMF체제이후 국내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녹용 판매가 수월치 않다 보니 전년도에 비해 사슴거래도 뜸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사슴사육에 새로 참여하는 농가수는 많지 않으나 기존 사슴사육 농가의 경우 품종개량 차원에서 우수 사슴 위주로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슴가격이 다소 하락했을 때 저능력 사슴을 고능력 사슴 위주로 교체하는 호기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양록농가도 서서히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가만

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외에 양록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입사슴과 수입녹용을 들 수 있다.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잡혀있던 사슴수입이 전면 취소되었고, 하반기 사슴수입 계획도 없어 수입개방이후 처음으로 사슴이 수입되지 않은 해로 기록될것 같다. 그러나 녹용은 4월말 현재 약3만9천kg정도 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양록농가를 아연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IMF 환란이전 가격보다 낮게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실 국내시장을 상대로 양록업에 목을 매고 있는 뉴질랜드나 캐나다는 머지않아 우리나라 양록업의 성장 발전 속도에 따라 포기하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 본다. 자기나라 국민들은 전혀 먹지 않는 녹용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도의적으로도 압력을 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녹용이다 보니 환율상승과 상관없이 우리의 녹용시장을 저가로 교란시키는 최후의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수입녹용 가격을 조사하여 국내 양록업 보호를 위해 이들 나라를 반덤핑국으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압력에 강력히 맞서야 할 때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자국에서 전혀 먹지 않는 물품을 상대국에 먹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바로 이점을 직시하여 녹용수급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